

Dow-PIC, 150억달러 프로젝트 추진

에틸렌 85만톤 크래커 건설 ... PE 50만톤 및 EG 60만톤 플랜트도

PIC(Petrochemical Industries), Dow Chemical 및 Boubyan Petrochemical이 쿠웨이트 Shuaiba에 150달러를 투자하는 석유화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huaiba 단지는 PIC 및 Dow가 각각 45%, Boubyan이 10%를 출자한 합작기업 Equate가 관장하며 2007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에틸렌 85만톤 크래커를 기반으로 PE(Polyethylene) 50만톤, EG(Ethylene Glycol) 6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3사는 또한 EB(Ethylbenzene) 33만톤 및 Styrene 30만톤 플랜트도 건설할 계획인데 에틸렌 85만톤 크래커에서 에틸렌을, PIC가 인근에 14억달러를 투자해 건설할 Aromatics 단지에서 벤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Styrene 플랜트 생산능력은 Aromatics 단지의 벤젠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PIC 및 Dow는 Shuaiba에 PS(Polystyrene) 플랜트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quate의 기존 에틸렌 플랜트 건설기업인 Kellogg Brown & Root가 신규 크래커 수주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PE 플랜트는 Univation Technologies의 프로세스를 사용해 기존 플랜트와 마찬가지로 Butene계 LLDPE 및 Blow-Molding 그레이드 HDPE를 생산할 방침이다.

Equate는 코스트가 가장 낮은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의 하나로 모기업인 KPC(Kuwait Petroleum)에 지불하는 가스원료 가격이 100만Btu당 1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KPC가 원료가격 인상을 추진중이어서 신규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7/11>